

Alvar Aalto의 作品에 대한 小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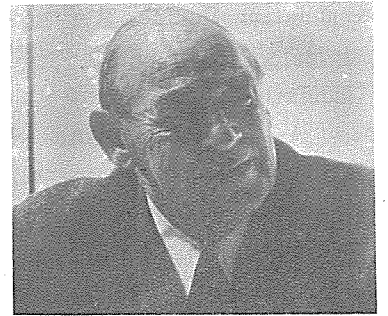
潘 好 鎔

(清州大 建築工學科 副教授)

Aalto의 建築은 特異한 點이 있으며 分析하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이 要因은 Aalto가 著作이나 講演 그리고 討論에 關하여 別로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의 作品에 關하여 물으면 眞理는 建物內에 있다는 內容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Aalto의 作品을 理解하려면 그의 作品을 直接 體驗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특히 Aalto의 作品은 大部分 Finland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Aalto의 建築에 理論的 근거가 결핍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다. Aalto는 1898年 Finland의 中西部에서 出生하였고 1940年 美國 MIT에 建築科 教授로 초빙되었으며, Aalto의 活動은 始終一貫하여 그 나라의 가장 騷亂한 시기와 一致된다. 金屬類와 木材와 물, 이것이 主要資源으로 많은 地域이 湖水로서 各 湖水는 4~5 계통으로 연하여 바다로 흐른다. 이러한 國家의 形편과 民族性과 大自然이 Aalto 建築의 뿌리로 되고 있다. Finland의 두 大戰은 철저한 打擊을 주었고, 이 때문에 파괴된 生産施設의 再建을 위한 資金이 거의 없어 住宅建設은 극도로 阻礙되었으며 公會堂과 博物館, 都市中心 기타 多少라도 財政上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建設에 쓸 수 있는 資金이 乏乏한 狀態였다. 따라서 Aalto의 建築은 그 當時에는 큰 建築을 발전할 수 없었지만 傳統의 材料인 木材의 獨創的인 創作力이 豊富한 新構造法의 대담한 使用으로 적은 規模의 建物이라 하더라도 詩情과 浪漫이 흐르는 建築을 많이 내어놓았다. 그리고 傳統의 木材의 使用과 自由스러운 曲線의 使用, 傳統의 形態의 表現等 初期의 作品에서도 앞으로 大成할 소지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懸賞設計에서 當選한 作品으로서 1930年 前後에는 Turun-Sanomat 新聞社 事務所 그리고 Viipuri 圖書館과 Paimio Sanatorium 등이 있는데 이것은 Aalto의 天才性을 證明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Finland의 상황을 아는 그에게는 pek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Aalto가 만일 他國家에서 자라났다면 Paimio Sanatorium 設計에서 1929年 卒, Aalto의 나이 30세에 一等의 榮光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Undulating Surface가 Aalto의 作品에 나타난것은 天障, 壁, Building Form, Glass Vase, Door Handle, Wood Sculptur, 家具等이다. Aalto가 Undulating Surface를 추구하려 했던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여기

에 對하여는 Giedion의 論文으로부터 最近 諸論文 가운데 다루고 있다. 이 Undulating Surface는 먼저 Paimio Sanatorium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入口의 케노피와 中央管理部의 책상에 서이고 viipuri 圖書館의 集會 홀의 天障(그림 1)의 경우 이 Undulating Surface는 주요한 要素로 되어 있다. 이 天障의 主要性은 Aalto가 Hall의 音響效果研究의 機能的 근거와 音이 空間을 傳



□ 알바 알토

播해가는 流動的 性質을 詩的으로 표현한 點이다. 이와 같은 機能的 또는 詩的 理由로서의 Undulating Surface의 天障을 採用한 예는 他의 建物에도 쓰여지고 있다. 即, Central Finnish Museum(그림 2)과 Wolfsburg Parish의 教會이다. Lapua의 農業博覽會의 森林館의 경우 이 Undulating Surface는 展示場을 둘러싼 壁을 波狀으로 處理하고 있다. 巨大한 뱀모양의 壁으로된 Baker House Dormitory(그림 3), Finlandia Hall會議場의 가리비 접질과 같은 壁들은 Aalto가 이 波動的의 表面을 建物의 壁面에 또는 建物全體에 採用한 실례이다. 이 壁體나 建物全體에 보여지는 Undulating Surface의 變種은 Fan-Plan 또는 Fan-Shaped form 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Otaniemi에 있는 工科大学의 寄宿舍는 Fan-Form이 採用되고 상황에 依하여 稜線이 쓰여지고 있다. Seinajoki(그림 4)나 Mount Angel과 같은 圖書館에서는 Fan-Plan내에 얼마간의 房이 포용된다. 여기서 는 Fan-Plan과 結合된 矩形平面으로 이루어 어진다.

1938년 New York의 世界博覽會에서 Finland館의 경우 내부에 3層分의 높이를 가진 傾斜진 木製 Screen이 内部空間을 흐르는듯한 자유스러운 曲線으로 둘러쌓여 있다. 各層은 아래층부터 傾斜지워 突出되어 있기 때문에 連統된 움직임이 強調된 우수한 展示效果를 내고 있다. 세로불인 Rib의 列과 그 변화하는 陰影의 리듬이 巨大한 화면에 生動感을 주고 있고, 이와같은 曲面의 展示壁面이 내부공간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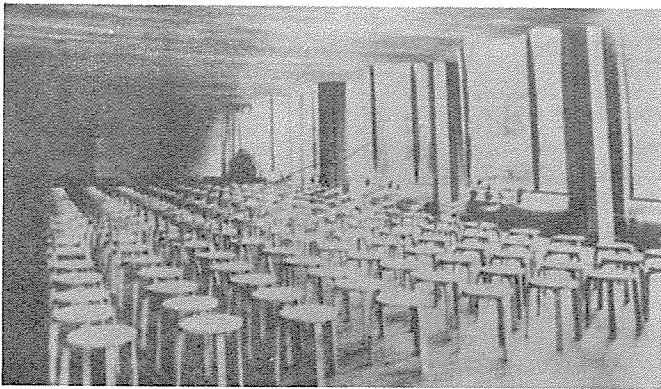


그림1 : 미팅·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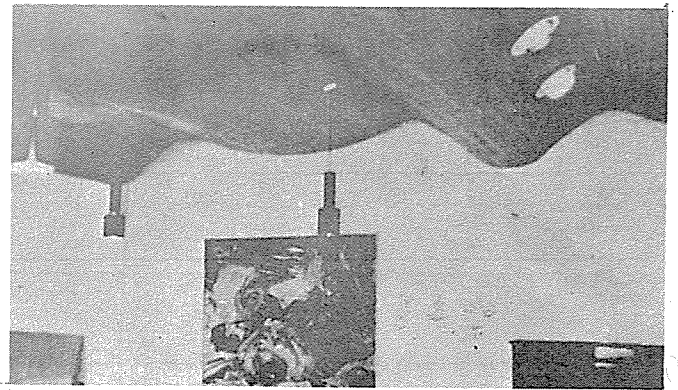


그림2 : Lecture Hall

Vuoksennika 教会의 境遇 Finland 館의 空間造形이 Undulating Surface 로서 極點에 達했다고 한다. Aalto 가 設計한 콘크리트홀의 内部는 大部分 空間으로서의 Undulating Surface 의 發達이나 變化인 것이다. 이와 같이 Aalto가 建築에 採用한 여러가지는 他人의 追從을 不許할만큼 유일한 것이다. 이 Undulating Surface 는 建物에만 限하지 않고 유리花瓶과 나무를 使用한 形態 Door Handle, Plywood Furniture, Light Fixture (그림 5) 들에서도 볼수 있다. 꾸불꾸불한 線을 Plan, Elevation Section 및 Detail에 여러 Scale에 걸쳐 使用된 것은 A-alto의 才能에 의한것이라 본다.

Aalto의 作品에서 많이 볼수 있는 Undulating Surface 에 대하여는 많은 起源이 있다고 보고 있다. 直接的 源泉으로서 또는 隱喩로서는 Finland의 風景을 들수 있다. 이것은 많은 著者들로부터 받아드려지고 있고 支持되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意見은 오랫동안 많은 著者들로부터 無批判의으로 받아드려져 왔다고 한다. Finland의 建築에 나무가 材料로 쓰여진 것은 우리가 잘 알수 있는것이고, 本國의 土着的인 建築에도 波動的 形態를 가진 例가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다. 風景이나 自國의 土着的 建築이나 機能과의 관련이 어찌되었건 Aalto는 Undulating Surface 를 使用하여 分明하게 願하는 形態를 이루고 있다. Aalto의 作品集이나 스케치를 보면 抒情的이며, 波狀의이고 흐르는 듯한 線을 볼수있다. 이와같이 素描에 의해 Aalto가 形을 探究하고 또 선택한 것을 볼수 있고 Aalto의 事務所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와같은 波動的 表面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Aalto 自身の 素描手法, 設計方法으로부터 強하게 나타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波動的 表面의 可能性이 建物에 이루어진 것은 A-alto가 그 可能性을 여러 媒体에 의해 精妙하게 試圖하고 여러 scale로 검토한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있다.

또한 Aalto의 作品에서 平面圖를 보면 左右 非對稱의 Auditorium 이나 意味를 잘 모를 平面形의 凹凸, 軸線의 어긋남이라든가 그가 Design한 硝子器에서 볼수 있는 曲線等, Elevation에서도 어떤 作品은 처마線이 지



그림3 :
Baker House
Dorm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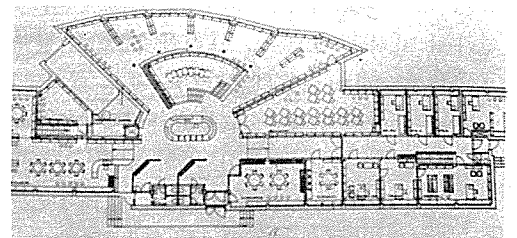


그림4 :
Seinajok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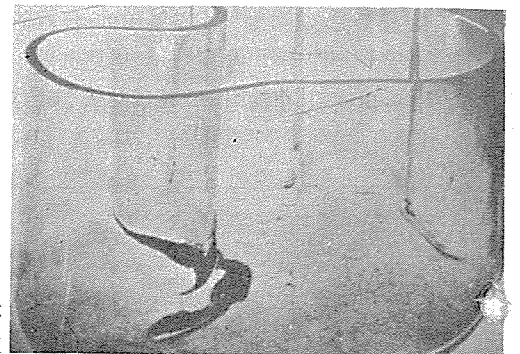


그림5 :
유리花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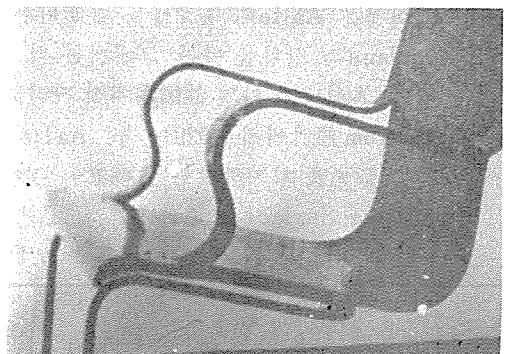


그림5 :
유리 의자

그재그가 되든가 曲面이 되든가 하는 경우가 많다. 實際로 그가 設計한 建築을 보지않고서는 적어도 平面圖만으로서 判斷되는 建築은 얼른보아 矛盾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생각된다. 그러므로 建築에 있어서 理論을 내세우는 傾向의 사람들은 平面圖와 機能과의 사이에 統一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矛盾이 있는 建築처럼 보이겠으나 실제 그가 建築을 設計한 實物을 보면 뜻밖에도 좋은 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alto의 建築은 秩序와 無秩序와의 사이에 平衡을 유지하고 있다. 即, Aalto는 아주 不調和 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 要素등에서 秩序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Otaniemi 工科大学의 講義廳(그림6)은 教室棟의 規則的 直角架構로부터 分化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도서관에서 보여지는 扇狀部分과 直角部分의 斷絶 方法의 가운데서도 같은 手法를 볼 수 있다. 入口의 位置, 連結의 位置 또는 向의 變化 같은 것은 Aalto에 의해 그의 獨特한 分節方法으로 되어 있다. Seinajoki Town Hall의 경우 箱子 Type은 會議室 있는 곳에서 箱子 Type을 벗어나 지붕에서 突出되고 있다.

Amos Chang은 “成長하는 것은 계속 살아 成長 해간다는 것이 基本的 機能이라 한다면 完全한 것, 完成된 것, 말을 바꾸면 成長도 變化도 안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했다. Aalto의 材料 取扱 方法을 보면 거기에는 永久的인 것과 永久的이 아닌 것과의 對立이다. 永久的인 것으로는 壁紙, 타일, 돌 등이고 永久的이 아닌 것으로는 나무 유리를 생각할 수 있다. 前者는 長期間 存續하고 後者는 파괴되기 쉽다. Aalto의 建物이 톱니 모양으로 된 그리고 不規則한 配置의 建物 등 어떤 것도 不完全, 未完成의 개념으로 맺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는 그의 圖面에서 보여진다. 사실 平面圖에서 前側과 後側의 壁面이 엇갈려 있어도 실제 建築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다는 것으로 視覺적으로 말하면 平面圖는 思考 가운데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壁이 Space Divider로서 建築 空間으로서 役割을 할 때는 空間은 Magic에 의하여 前側과 後側과에는 視覺的인 關係는 없이 各各 獨立해서 號銘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더욱 適合한 Door Handle이라든가 階段의 Handrail이라든가 照明器具나 家具 등으로 그 空間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Aalto는 前側의 空間과 後側의 공간과는 矛盾이 있어도 個人에 對하여는 同時에 2개의 空間을 느낄 수 없는 것을 計算에 넣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平面 Grid System이라는 것 즉, Module이라든가, Standardization이라는 것은 空間의 魔術을 모르는 建築家로서 그는 꼭 하고 싶은 것과 가려운 곳을 손으로 긁어주는 方法으로 생각되는 것을 한것에 不遇하다는 것이다. 다른 建築家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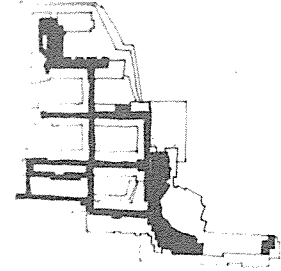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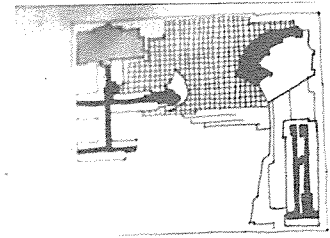


그림 6 : Cultural Center

실행하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Le-Corbusier의 建築은 Positive한 空間으로 自己完成的으로 内部機能의 變更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을 한다면 Aalto의 作品은 內側으로부터 秩序를 가지런히 해가는 方法으로 充分한 注意가 있고 自然增殖的으로서 뒤에 增築한 것이 最初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을만큼 内部機能의 變更에 잘 対応한다고 볼 수 있겠다. Aalto에 대해서는 그의 作品集을 보는 것 보다 Finland라는 環境 가운데서 실제로의 建築을 보는 것이 더욱 感銘깊은 建築을 設計한 建築家인 것이다.

Aalto의 위대한 점은 그가 자라난 Finland의 땅과 社會와 民族에서 한걸음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바탕 위에서 모든 創造活動을 進行시켜 다른 外部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造型적으로는 Finland 特有의 木材, 壁紙로 그나라의 굴곡진 湖水의 自然을 상징하는 것과같은 부드러운 曲線을 썼다는 점등 Aalto는 建物을 실제로 세운다는데에 注意를 한 建築家라는 것으로 Aalto의 建物은 결코 우둔하거나 魅力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建築家의 役割과 目的을 결코 잊지는 않았다. Aalto의 作品에 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고 또 잘못된 곳이 있으리라 믿는다. 다만 書籍을 통하여 느낀바를 썼을 따름이다. (*)

(參考文獻)

- (1) 鄭寅國, 近代建築論, 文運堂, 1972.
- (2) 太田實訳, (S. Giedion著), 空間時間建築, 丸善株式会社, 1961.
- (3) 現代建築家 (Series中에서 Alvar Aalto편)
- (4) 建築と都市(a+u), 79:10 (No.109), a+u社
- (5) Karl Fleig, Alvar Aalto, 1974~1975 Masters of World Architecture.
- (6) 猫野勇一, 小池新二編, 世界の現代建築 3卷, Sweden, Finland篇; 彰国社, 1954.
- (7) 浜口隆一, 神代雄一郎監修, 現代建築事典, 鹿島出版社, 1977.